

코로나 3년, 창업 열기 식었다

상반기 광주·전남 3만7661개...전년 동기대비 2955개 줄어 기술창업 4.7% ↓...광주 제조업 감소율 8대 특·광역시 최고 중대재해법·원자재값 상승에 건설업 줄고 도·소매업은 증가

코로나19 직후 불었던 창업 열기가 식으면서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 창업기업 수는 4만개를 밑돌며 지난 2016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광주·전남 창업기업 수가 4만개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9년(3만9674개) 이후 3년 만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창업기업은 광주 1만7345개·전남 2만316개 등 3만766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616개)보다 7.3%(-2955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주 창업기업은 1만8531개에서 1만7345개로 6.4%(-1186개) 줄었고, 전남은 2만2085

개에서 2만316개로 8.0%(-1769개) 감소했다.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창업기업 감소율 4.7%(73만260개→69만5891개)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창업기업이 증가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11.5%), 강원(1.8%) 2곳뿐이었다. 상반기 기준 광주·전남 창업기업은 지난 2020년 4만6799개(광주 2만1512개·전남 2만5287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4만616개(광주 1만8531개·전남 2만2085개), 올해 상반기 3만7661개 2년 연속 감소했다.

올 상반기 광주·전남 기술기반 업종 창업은

5176개로, 전년(5429개)보다 4.7%(-253개) 감소했다.

기술창업 업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광주 기술창업은 전년보다 4.0%(-111개) 감소한 2679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15.4%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은 지난해보다 5.4%(-142개) 줄어든 2497개로, 12.3% 비중이었다.

광주·전남 기술창업 감소율은 전국 감소율(-0.9%)을 크게 웃돌았다.

광주 제조업 부문 창업기업은 지난해보다 18.6%(571개→465개) 줄었는데, 이같은 감소율은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 제조업 창업도 832개에서 728개로 12.5%(-104개) 줄며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광주는 건설업 창업 감소율(-12.3%)도 8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 건설업 감소율도 7.1%로, 전국 평균(-5.2%)을 크게 웃돌았다.

중기부 측은 "중합·전문업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등 건설업 생산체계가 개편되고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여파로 건설업 창업이 감소"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 영향으로 건설 자재 가격도 올라 발주가 감소하면서 건설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와 전남 두 지역 모두 창업이 증가한 업종은 도·소매업이었다.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광주 도·소매업 창업은 전년보다 4.7%(257개) 증가한 5688개, 전남은 0.8%(43개) 늘어난 5750개로 집계됐다.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올해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됐음에도 식재료 가격과 전기료 인상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광주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지난해 상반기 2350개에서 2220개로 5.5%(-130개) 감소했고, 전남은 3577개에서 2869개로 19.8%(-708개) 줄었다.

광주·전남 금융 및 보험업 창업은 지난해 217개에서 올해 120개로, 반토막(-44.7%) 났다.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업 창업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보험대리 및 중개업 중심으로 지난해 급증의 기저효과로 창업이 감소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 이어 지역에서 높은 감소율을 나타낸 창업 업종은 부동산업이었다. 광주 부동산업 창업은 3777개에서 2894개로 23.4%(-883개) 감소했고, 전남은 3250개에서 2255개로 30.6%(-995개) 줄었다.

부동산업 창업 감소는 지난 2020년 7·10대책의 하나로 주거용 건물임대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도 올라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창업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에서는 귀농 인구가 늘고 스마트팜 등 산업이 첨단화되면서 농림어업 및 공업 창업이 7.4%(1015개→1090개) 증가했지만, 광주는 39.0%(59개→36개)나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추석 차례상 비용 소폭 하락

평균 31만7142원으로 전주보다 0.3% 내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추석을 열흘 앞둔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7142원으로, 지난해(29만7804원)보다 6.5%(1만9338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단 전주 차림 비용보다는 0.3% 내렸다. 업체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1932원, 대형유통업체가 36만2352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5% 저렴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시장은 1만7636원(6.9%), 마트는 2만1040원(6.2%) 상승했다. 전주보다는 시장이 0.1%, 마트는 0.4% 각각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1일 전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실시했다.

한편 가족 구성원 감소로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추세를 반영한 간소화 차례상(18개 품목)은 전통시장 11만1299원, 대형유통업체 13만9611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일주일 전보다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은 시금치 24.0%(400g 7708원)와 배추 10.2%(300g 900원) 등이었다.

사과(-4.0%)와 배(-5.6%), 대추(-2.6%)는 정부 보유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하되면서 가격이 일주일 새 내렸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고 있다.

전통 차례상과 간소화 차례상의 차림 비용 상세 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미래 라이프스타일 '스마트싱스' 소개

IFA 2022가 열리는 메세 베를린에 위치한 시티 큐브 베를린 '삼성 타운'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전시장 입구 대형 LED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상' 전시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2'에서 '스마트싱스'를 통한 새로운 소비자 경험과 지속 가능한 기술로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제공>

증시 '털썩'

코스피 2.28% 하락한 2415.61 마감

코스피가 1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에 2410대로 추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6.44포인트(2.28%) 내린 2415.61에 장을 마쳤다. 이날 낮쪽은 지난 6월 22일(-2.74%) 이후 가장 컸다.

지수는 전장보다 29.05포인트(1.18%) 내린 2443.00에 개장해 장중 하락 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86억원, 8325억원을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홀로 1조1610억원을 순매수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악영향을 받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3원 오른 1354.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장중 한때 1355.1원까지 올라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1352.3원)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이날 환율은 고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29일(1357.5원) 이후, 증가 기준으로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8일(1356.8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정규직 신입 행원 모집

5~13일 원서 접수

광주은행은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정규직 신입 행원 원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20여 명이다.

모집 분야는 중견 행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과 초급 행원(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으로 나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개 방식으로 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반상식, 인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중견 행원에 대해 지역인재,

일반인재, 디지털·IT, 통계·수학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초급 행원에 대해서는 디지털·IT 분야를 모집한다.

이중 지역인재 및 디지털·IT 부문은 광주·전남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일반인재 부문은 출신학교 지역을 구분하지 않으며, 통계·수학 부문은 관련 학과 전공자 대상으로 지역인재와 일반인재를 구분해 채용할 예정이다.

신입 행원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광주은행 TV' 채널과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 모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역에 4차산업혁명 분야 미래데이터 산업전문가 양성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데이터사이언스(D.S) 전문가 양성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남에 거주(예정)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100명으로, 6개 시·군 소재의 데이터 관련 기업의 일자리 제공과 정규직 전환 기회를 준다. 또 채용된 청년근로자에게는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와 전남 이외의 지역에서 채용기업 소재의 시·군으로 전입할 경우 지역정착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근로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온

라인 기본교육과정 및 데이터 분석, 마케팅 활용, 인공지능 등 필요한 직무의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하반기에는 기본 교육과 연계된 자격증 취득 지원과 관련 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전시회 및 현장 견학, 1:1 전문가 컨설팅 등 청년근로자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기업 및 청년근로자는 상시 접수 가능하며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홈페이지(ictwork.net)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참여기업별 인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진흥원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데이터 사이언스(D.S) 전문가 양성사업'을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본부는 광주시 광산구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고령자에게 기초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 주요 장소에는 기초연금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홍보물을 게시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과 '기초연금 모의계산 활용방법' 영상을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소득·재산 내용을 입력하면 나의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모바일 앱 '내걸에국민연금'이나 '복지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5월 기준 약 611만 명이 급여를 받고 있다.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면 180만 원, 부부 가구면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추석맞이 복지관에 팔빙수 전달 한국전력 최영호(왼쪽 두 번째)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실 직원들은 지난 31일 추석맞이 광주시 북구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팔빙수를 나눠주고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한전 제공>

한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5.61(-56.44)
↓ 코스닥	788.32(-18.72)
↑ 금리(국고채 3년)	3.778(+0.093)
↑ 환율(USD)	1354.90(+17.30)